

제2 편 고대 국어

‘고대 국어’는 우리말의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고대 시기의 국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0세기 고려 건국 이전까지, 곧 통일신라(≈후삼국 시대)까지의 언어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우리말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극히 적은 데다 우리말을 직접 표기할 고유의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차자표기(借字表記)를 통해 남아 있는 문헌이나 금석문(金石文)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고대 국어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복원이 어렵지만, 중세 국어의 기반을 형성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대 국어 자료에는 향가를 비롯한 향찰(鄉札) 표기 자료, 신라 및 고구려의 비문, 『삼국사기』의 고지명이나 관등명, 『일본서기』 등에 남은 어휘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우리말의 음운 체계와 문법적 특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한 연구가 얼마나 “실증”되는가 즉 그 “재구 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는 이견이 분분하겠지만 고대 국어는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중세국어 이전의 언어 변천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 할 수 있다.

2.1. 국어의 계통

국어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조상 언어로부터의 분화와 그로 인한 독자적인 발달 그리고 주변 언어와의 접촉 속에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어의 계통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언어의 친족 관계’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역사적 이동과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어의 계통에 대한 연구는 대략 19세기 말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는 주변 언어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국어를 ‘알타이어족(Altaic) 언어’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일본어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조어’⁹⁾를 가정하기도 하며, 근거가 부족해 계통을 밝힐 수 없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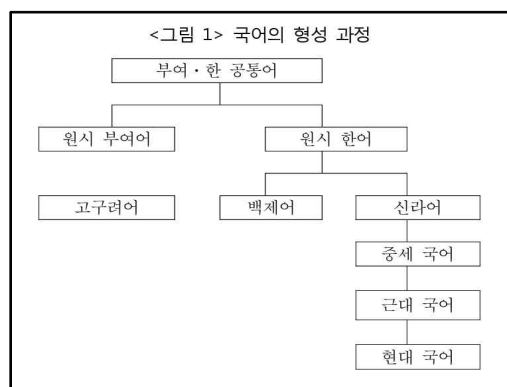
언어의 계통을 논할 때 사용되는 ‘어족’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어족(語族)’이란, 하나의 공통된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여겨지는 언어들 집합을 말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같은 어족에 속하더라도 각각의 언어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된 결과일 뿐이다. 하나의 조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세대를 거치며 각기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만, 결국 그 뿌리는 같다. 언어학에서 특정 언어가 같은 어족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단어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넘어, 비교언어학이라는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기초 어휘(신체, 숫자, 친족 등), 문법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음운 대응 관계’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같은 기원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족의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조어(祖語)’ 즉 ‘조상 언어’이다. 조어는 대부분 문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날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가설적이고 재구된 언어이다. 학자들은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후손 언어들에 남은 공통된 흔적들을 역추적하여 조어의 모습을 복원한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많은 언어들에 ‘인도유럽어족’이라는 거대한 어족을 형성하는데, 이들의 조어인 ‘인도유럽조어’는 후손 언어들 간의 통시적인 비교를 통해 재구된 것이다.

9)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조상 언어

국내 학계의 전통적인 통설은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어가 튀르크어, 몽골어, 통구스어 등과 함께 ‘**알타이조어(Proto- Altaic)**’라는 공통의 조상 언어에서 분화되었다는 가설을 의미한다. 20세기 초중반에는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러한 국어학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과서도 한국어의 어족은 알타이어족이라는 서술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알타이어족의 근거가 사실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언어들 사이에 규칙적인 음운 대응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알타이어족 의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외 학계에서는 알타이어족은 실질적으로 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 학계에서도 신증론 또는 부정론으로 돌아선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어 교과서의 서술도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에서 ‘한국어의 어족은 확실치 않지만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언어학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알타이어족 자체가 크게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¹⁰⁾ 한국어의 계통을 논함에 있어 “알타이어족이 유력하다”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다. 알타이어족 자체가 가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타이어족은 단순히 하나의 후보군일 뿐이지, 유력한 후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한국어는 계통론적 고립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현행 5종 교과서 중 4종이 여전히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으로 보거나 혹은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2022 개정 지학사 『화법과 언어』의 교사를 위한 문법 지도서의 ‘확인 문제’에선 “①국어의 계통은 알타이어족설이 가장 유력하다.”가 적절한 선지로 되어 있기도 하다. 즉 여전히 **학교문법 체계에서의 정설은 알타이어족이다**. 또한, 전통적인 국내 학계의 의견을 따르자면 알타이어족에서 분화된 원시국어가 한반도 북쪽의 원시 부여어와 남쪽의 원시 한어로 나뉘고, 다시 원시 부여어는 고구려어로, 원시 한어는 백제어¹¹⁾와 신라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한계 언어인 신라어가 고려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말의 조상은 신라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견해차가 큰 이론이므로 교과서에 한정하면 몰라도 교과서를 넘어선 수준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고 믿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어의 계통론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 전행 교과서인 이남호 외(2012:104)¹²⁾에서는 “알타이 어족설은 기초 어휘의 일치 및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음을 생각하면 현행 및 차기 교과서의 서술은 자못 아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동석 (2014: 292)

10) 알타이어족의 비판점은 Clauson, Doerfer, George, Vovin의 논의가 참고된다. 왜 대다수의 학자들이 알타이어족을 부정하는지는 Campbell & Poser(2008)의 Chapter 7과 Chapter 9이 참고되며 대략적인 알타이어족 연구사는 김주원(2008)이 참고된다.

11) 국내에서 백제어는 부여계로 보기도, 한계로 보기도 하며 그 두 언어층이 모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12) 이동석(2014:292)에서 재인용. 이남호 외(2012)는 『독서와 문법 II』(비상)을 말한다.

2.2 고대 국어와 전기 중세 국어

고대국어라는 단원명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초기 모습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전기 중세국어 자료까지 포함하여 고대국어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적 효율성과 학계의 연구 관행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고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에서는 전기 중세국어의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의 시기를 고대·중세·근대로 구분하면서도, 실제 중세국어 단원은 주로 15세기 이후의 한글 자료, 즉 후기 중세국어에만 집중된다. 이 때문에 전기 중세국어를 중세 단원 내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고대국어 단원에서 차자표기 자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교육 측면에서 현실적이다. 고교 과정의 “중세국어” 단원은 “후기 중세국어” 단원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둘째, 학계의 연구 전통 또한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한 축으로 묶어 기술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석독구결을 비롯한 다양한 차자표기 문헌이 발굴된 이후, 이 자료들이 음운·문법적으로 향가나 이두와 더 가까운 성격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다루며, ‘차자표기 국어’라는 공통된 자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1998)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학계의 연구뿐 아니라 교과서 체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은주 외(2025:214)에선 고대국어 구결의 예시로 『합부금광명경』(1250) 권3:14의 “衆生 發菩提心”¹³⁾을 제시하였고, 이관규 외(2025:211)에선 이두와 구결의 예시로 각각 『대명률직해』(1395)와 『구역인왕경』(12세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이두 및 구결 자료가 고려 시대 즉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발간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이들을 제외할 시 고대국어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차자 표기 자료가 매우 적어진다.

셋째, 한글 창제가 국어사의 시기 구분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 창제가 곧바로 언어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성격 변화가 연구 방법론을 완전히 달리 만들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한글 자료는 표기 방식이 안정적이고 음운 정보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반면, 차자표기 자료는 한자의 제약 속에서 한국어의 음운·문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상 해독·해석 과정에서 고도의 재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료 성격의 변화가 연구의 접근 방식까지 분화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에서도 두 자료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황선엽(2013)의 제안대로 차자표기 자료의 시대로서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를 하나의 단원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물론 고대국어라는 시대 구분은 유지하되 교육과 자료의 이점을 위해 전기 중세국어도 고대국어 단원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단원들을 읽을 텐데 다 읽고 나면 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다. 조잡하고 불완전한 차자표기만을 근거로 고대국어의 모습을 복원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도 난해한 작업이다.

13) 전은주 외(2025)에서 “衆生 發菩提心”의 출처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이는 『합부금광명경』 권3:14의 24행에 쓰인 “無量衆生 發菩提心[量 無 1 衆生 1 菩提心 乙 發 乙 乙]”와 일치한다.

2.3 자료와 표기법

고대국어 연구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자료와 불완전한 표기 체계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의 한국어는 한글 창제 이전이므로, 모든 기록이 한자라는 외래 문자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자는 한국어의 음운 구조와 문법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며, 본래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고대 한국어의 발음과 문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없었다. 특히 음가를 빌려 쓰는 음차(音借) 표기의 경우에도, 그 한자가 고대 중국에서 어떤 발음(재구음)을 지녔으며 그것이 한국어 화자에게 어떤 소리로 인식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대응 관계를 밝힐 수 있어 분석이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현존하는 자료의 양 역시 중세국어에 비해 현저히 적어, 남아 있는 이두·향찰·구결 문헌의 일부 구절을 바탕으로 전체 체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대국어의 음운·형태·통사 구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연구는 필연적으로 간접적 추론과 비교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체계적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자료들은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국어 모습을 담고 있는 만큼, 한자 차용 방식과 표기 원리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고대국어의 구조, 그리고 중세국어로 이어지는 변천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국어사의 자료는 크게 한국어 화자가 직접 적은 국내 자료와 외국인이 적은 국외 자료로 나눌 수 있는데 현존하는 고대국어 국외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국내 자료를 위주로 알아볼 것이다.

고대 국어 시기에는 고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입으로는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기록은 한문으로 하는 언문이치(言文二致)의 생활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말을 직접 한문으로 번역하여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우리말을 항상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해 낼 방법을 찾아내었는데 이것이 바로 ‘차자 표기’이다. 차자 표기란 타국의 글자를 빌려서 자국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 조상이 선택한 타국의 글자는 바로 한자인데, 차자 표기의 원리는 크게 음독자, 음가자, 훈독자, 훈가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알다시피 한자는 문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기에 외국인 입장에선 한자의 음과 뜻 두 가지를 모두 배워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天이란 한자를 보고 [천]이란 소리와 ‘하늘’이라는 뜻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빌리면 ‘음차’라 하고 뜻을 빌리면 ‘훈차’라고 한다. 음차에서 소리를 빌리면서 뜻도 살리면 ‘음독’이라고 하고, 소리만 빌리고 한자의 의미를 무시하면 ‘음가’라고 한다. 훈차에선 해당 한자에 부합하게 뜻을 빌리면 ‘훈독’, 뜻을 빌리되 본래의 한자 뜻과는 별 상관없는 방향으로 읽으면 ‘훈가’라고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쓴 한자는 ‘자(字)’를 붙여 음차자, 훈차자 등으로 부른다. ‘春’으로 예를 들자면, 음독자는 ‘春’이라 쓰고 [spring]이라는 뜻을 가진 [춘]으로 읽는 것이고, 음가자는 ‘삼춘(삼춘)’을 소리나는 대로 ‘三春’과 같이 써 [춘]으로 읽는 것이며, 훈독자는 [spring]이라는 뜻을 가진 [봄]으로 읽는 것이고, 훈가자는 ‘春’이라 쓰고 [see]라는 뜻을 가진 [봄(보--+口)]으로 읽는 것이다.¹⁴⁾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따라서 차자표기는 이두, 향찰, 구결로 분류되며 이외의 차자 표기로 어휘 표기도 있다¹⁵⁾

14) 대다수의 교과서는 ‘독가(讀假)’의 원리를 언급하지 않아 한자의 음을 읽는 ‘음독’과 한자의 뜻을 읽는 ‘훈독(석독)’만 제시한다. 그러나 독가의 원리는 무척 간명하고 효율적인 체계이므로 여기서는 차자의 원리를 네 부류로 나눠 설명한다. 자세한 것은 이 글이 참고된다.

15) 이두, 구결은 표기 체계를 말하기도, 그 표기 체계의 문자를 말하기도 한다.

2.3.1 이두

이두는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하급 관리들의 행정 문서 기록에 이용되었다.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를 뜻하는 한자 ‘食飯(식반)’이 있다고 하자. 이를 이두식으로 바꾼다면 우리말의 어순은 SVO(주어-서술어-목적어)가 아니라 SOV(주어-목적어-서술어)이므로 食과 飯을 뒤집어야 하고, 목적격 조사도 필요하니 ‘을’을 나타내던 乙을 추가하게 된다. 즉 ‘飯乙食’과 같은 표기가 이두식 표기인 것이다. 여기서 형식형태소인 ‘乙’을 빼더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용례를 보자.

ㄱ. 임신서기석(522)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삼 년 이후에 충도를 지너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ㄴ. 갈항사석탑기(758)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姊姊妹 三人 業以 成在之
(두 탑은 천보 17년 무술년에 세웠다. 남자매 세 사람이 업으로 세웠다.)

ㄷ. 대명률직해(1395)

凡男女定婚之初良中 萬一殘疾老弱及妾妻子息收養子息等乙 兩邊弋只 仔細相知爲良只
(무릇 남녀가 정혼할 즈음에 만일 병이 있는 노약자 및 첩의 자식이거나 수양 자식들을 양쪽의 자세히 서로 알도록 한여)

5세기경부터 7세기까지를 초기 이두라 한다. 이 시기에는 ‘中, 節, 之’ 등 몇 안 되는 형식 형태소만이 보이거나, (ㄱ)처럼 우리말 형식 형태소는 나타나지 않지만,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大罪得’ 등과 같이 문장 자체가 우리말 어순으로 된 표기가 보인다. 만약 이들이 한문이라면 ‘誓天前’, ‘自今三年以後’, ‘執持忠道’, ‘誓無過失’, ‘得大罪’ 등과 같이 표기되어야 한다. 설총이 이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지만 창시자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표기를 정리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ㄱ)은 설총이 살았던 시기보다 이전에 쓰인 이두식 표기이며 이두는 대략 5~6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8세기부터는 (ㄴ)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를 나타내는 ‘中’, ‘으로’를 나타내는 ‘以’ 등의 형식 형태소가 본격적으로 표기되었고, 동사나 부사와 같은 실질 형태소도 일부지만 차자 표기를 하기도 하였다. ‘및’이라는 부사를 ‘及’으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이두는 고려 시대에 널리 쓰였으며 (ㄷ)과 같이 조선 초에서부터는 완전히 정형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조선 후기까지 쓰였다.

2.3.2 향찰

향찰은 한국어를 차자로 가장 완전히 기록할 수 있던 표기법으로 우리말 어순과 한문 어순이 섞여 있는 이두와 달리 향찰은 우리말 구조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 고유의 시가였던 향가를 위한 전용 표기법이었기에 향가의 유행이 끝나가는 고려 말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음독이

기본인 이두와는 달리 실질 형태소는 훈독, 형식 형태소는 음독하는 식으로 쓰였다.¹⁶⁾

원문(처용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為理古	東京 불기 드라라 밤 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네히러라 두브른 내해엇고 두브른 누기해고 본디 내해다마르논 아사늘 엇디흐릿고	東京 밝은 달에 밤 들도록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 해엇고 둘은 누구 해인고 본디 내 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ㄱ. 明(불=-=밝-), 月(드랄=달), 夜(밤), 入(들-), 遊(놀-), 行(니-), 寢矣(자리=자리), 見(보-), 脚烏(가
를=다리), 四(넝=넛), 二盼(두블=둘), 吾(나/내), 下(하=해(것)), 誰支(누기=누구), 奪叱(앗-), 등
ㄴ. 期(-기), 良(아=에), 伊(-이), 如可(-다가), 沙(사=야), 昆(-곤), 伊(이), 是(이-), 良(-어-), 羅(-라),
隱(은/은), 등

(ㄱ)은 실질 형태소, (ㄴ)은 형식 형태소인데 보이다시피 실질 형태소는 훈차, 형식 형태소는 음차
가 기본이었다. 이중 是와 如是 음차가 아닌 훈차이고 그중에서도 훈가인 경우로 이들은 형식형태소
임에도 음차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로 다를 수 있다.

2행에서 한자를 어떻게 썼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기	夜	入	伊	遊	行	如	可
뜻	밤	들	저	놀	닐(갈)	다(갈을)	울을
음	야	입	이	유	행	여	가

‘夜’은 뜻(훈)으로 읽으며 맥락상 ‘밤’을 뜻하는 것이 맞으므로 훈독자이며, 入과 遊, 行 모두 마찬
가지로 훈독자이다. ‘伊’는 ‘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데 쓰였으므로 음차자인데 ‘저’라는 뜻과 상관
없이 읽으므로 음가자이다. ‘可’ 역시 음가자이다. 반면에 ‘如’는 소리는 ‘여’인데 ‘다’를 나타내므로
음으로 읽는 것이 아닌 훈으로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훈차자인데 그중에서도 ‘如’의 뜻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훈가자이다.

향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말음첨기’¹⁷⁾가 있다. ‘말음첨기’란 우리말을 훈차로 적을 때 뒤
에 음차자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말음’은 종성이 될 수도, 하나의 음절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위 처용가의 ‘奪叱(앗-)’을 보면 ‘奪(빼앗을 탈)’을 훈차로 쓰고 그 뒤에 ‘叱’을 썼는데 ‘叱’은
종성 ‘ㅅ’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비슷한 예로 혜성가의 ‘城叱(жат)’과 모죽지랑가의 ‘夜音(밤)’

16) 향가의 해독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현행 및 차기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김완진의 해독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박지용 외(2012)에 실린 김완진(1980)의 해독을 제시하도록 한다. 양주동의 해독
을 신기도 하나, 주로 김완진의 해독을 교과서에 실는 듯하다.

17) 훈주음종이나 말음첨기의 정의와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다. 관련해서 김지오·이용(2024)이 참고된다.

이 있는데 이들 모두 종성 말음 첨기의 예로, 훈차자인 ‘城(재 성)’과 ‘夜(밤 야)’ 뒤에 음차자 ‘叱’과 ‘音(소리 음)’을 덧붙여 ‘스’와 ‘모’를 나타냈다. 또한, 음절을 덧붙인 예로 현화가의 ‘岩乎(바회)’와 원가의 ‘世理(누리)’가 있다. 훈차자인 ‘岩(바위 암)’과 ‘世(세상 세)’ 뒤에 음차자 ‘乎(어조사 호)’와 ‘理(다스릴 리)’를 덧붙여 ‘회’와 ‘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말음첨기는 훈차자만 쓸 경우 그것을 한자의 훈으로 읽어야 할지 한자의 음으로 읽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독법을 분명히 하고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말음첨기는 향찰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의 다른 차자 표기에도 널리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구결에 자주 쓰인다. 향찰에서 주로 쓰인 말음첨기자는 아래와 같다.

- ㄱ: 只 (唯只=오직)
- ㄴ: 隱 (一等隱=흐든=하나)
- ㄷ: 尸 (二尸=두블=둘)
- ㅁ: 音 (雲音=구름=구름)
- ㅂ: 叱 (汀叱=긫=가)
- ㄹ: 里 (呑里=우리)

다른 대표적인 향가의 해독도 제시할 테니 한번 분석해 보자. 분석이 어렵다면 고대국어 문법을 배우고 오도록 하자. 여기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김완진의 중세국어 해독과 동일한 단위로 원문을 띄어 쓰도록 한다.

원문(모죽지랑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去隱 春 皆理米 ¹⁸⁾ 毛冬 居叱沙 哭屋尸 以 憂音 阿冬音乃叱 ¹⁹⁾ 好支賜烏隱 兒史 年 數就音 墮支行齊 目煙 迴於尸 七史 伊衣 ²⁰⁾ 逢烏支 惡知 作乎下是 ²¹⁾ 郎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간 봄 몬 오리매 모들 기스샤 우를 이 시름 므듬곳 불기시온 즈시 히 헤나삼 헐니저 누닉 도랄 업시 덕웃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郎이여 그릴 므스미 좃 녀올 길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울 이 시름 殿閣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오리

원문(현화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紫布 岩乎 过希 執音乎 手 ²²⁾ 母牛 放教遣 吾脢 ²³⁾ 不喻 慚脢伊賜等 花脢 折叱可 獻乎理音如 ²⁴⁾	지뵈 바회 ㄱ새 자뵈문 손 암쇼 노히시고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고즐 것거 바도림다	자쫓뵈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18) 대부분 皆을 어간의 일부(양주동은 ‘그리워하-’)로 파악하나, 김완진(1980)은 ‘몰 오-’의 의미로 본다.
 19) 대부분 阿冬음을 음차(아름, 아뎌, 아드름 등)로 보나 김완진(1980)은 殿閣으로 본다. 김완진(1985)에서는 다시 수정을 가하긴 했으나 위들 해독과 다르다. 김완진의 해독의 문제점은 김유범(1998)이 참고된다.
 20) 어떻게 끊어 읽을지 이견이 있으며 김완진(1980)은 七을 无의 잘못(轉訛)으로 봐 ‘없-’으로 해독한다.
 21) 作은 ‘일오-’로 보는 견해와 ‘짓-’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22) ‘암소를 잡고 있는 손’이라는 뜻이다.
 23) 脢를 ‘홀/를’로 읽을지 ‘홀/홀’로 읽을지는 이견이 있으나 대부분 ‘홀/홀’로 읽는다.
 24) 理音如는 ‘림다’로 읽기도, ‘리이다’로 읽기도 한다.

원문(찬기파랑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咽鳴爾 處米 ²⁵⁾ 露曉 邪隱 ²⁶⁾ 月羅理 ²⁷⁾ 白 雲音 逐于 浮去隱 安支下 沙是 ²⁸⁾ 八陵隱 汀理也中 耆郎矣 良史是史 藪邪 逸烏川理叱 ²⁹⁾ 磧惡希 郎也 持以支如賜烏隱 心未 際叱盼 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次 高支好 雪是 ³⁰⁾ 毛冬 乃乎尸 花判也	늦겨곰 브라매 이슬 불간 드라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아 逸烏나릿 지벽기 郎이여 디니더시온 므스미 7술 좃노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들 두폴 곳가리어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逸烏내 자갈 벌에서 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잣 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원문(서동요)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善化公主主隱 ³¹⁾ 他 密只 嫁良 置古 薯童 房乙 ³²⁾ 夜矣 芻乙 ³³⁾ 抱遣 去如	善化公主니리문 넙 그속 어러 두고 薯童 방을 바매 알흘 안고 가다	善化公主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薯童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

원문(제망매가)	해독(중세국어)	현대어역
生死 路隱 此矣 有阿米 次盼伊遣 吾隱 去內如 辭叱都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於內 秋察 早隱 風未 此矣 彼矣 浮良 落尸 葉如 一等隱 枝良 出古 去奴隱 處 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 逢乎 吾 道 修良 待是古如	生死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늠다 말스도 몬다 니르고 가늠닛고 어느 7술 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뿌러딜 닙근 흐든 가지라 나고 가는 곧 모드론더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몬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잊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야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닷아 기다리겠노라

25) 대부분 咽鳴爾處米를 전체로 보고 ‘열치매(열어 젓히매)’ 정도로 해독하나, 김완진은 5글자 전체를 음독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 咽鳴爾/處米로 끊어 읽는다. 관련해서 서정목(2014)이 참고된다.

26) 대부분 露를 ‘드러나다, 나타나다’로 혼독하지만 김완진은 ‘이슬’로 혼독한다. 邪隱 역시 露曉邪隱으로 볼지, 露曉/邪隱으로 볼지 또 邪의 의미는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학자마다 해독이 다르다.

27) 羅를 종성 말음첨기로 보아 ‘돌이’로 보기도, 하나의 음절을 담당한다고 보아 ‘드랄이’로 보기도 한다.

28) 沙를 음독하면 접두사 ‘새-’로 보아 ‘새파란’으로 해독한다. 혼독할 경우 ‘모래’로 본다.

29) 대부분 逸烏를 고유명사로 보아 ‘내’의 이름으로 보나, 음독하여 해석하기도 한다(양주동은 ‘이로부터’)

30) 雪是를 혼독하여 ‘눈이’로 보는 견해와, 음독하여 ‘서리’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양주동은 후자)

31) 主隱을 ‘님은’으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고 모음조화 등의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 중세국어는 ‘니문/니몬’으로 보지만 김완진은 『일본서기』의 표기를 바탕으로 ‘님’의 옛 형태 ‘*니림’을 재구하였다.

32) 房乙을 목적으로 보느냐 부사어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김완진은 의미상 부사어로 본다.

33) 芻를 卵로 보느냐 卵로 보느냐, 또 그것이 목적어이나 부사어이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김완진은 芻乙을 목적으로 보고 ‘알을’로, 양주동은 부사어로 보고 ‘몰래’로 해독한다. ‘무엇을’로 해독하는 학자도 있다. 芻를 芻으로 보고 다른 해독을 제시하기도 한다.

2.3.3 구결

구결은 한문의 어순대로 쓰되 한문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필요할 때만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 즉 조사나 어미 등을 첨가한 표기법이다. 구결은 기본적으로 어순을 바꾸지 않고 형식 형태소만 추가한 것이므로 형식형태소를 제외하면 한문이 된다. 구결은 사용되는 문자 종류에 따라 한글 구결과 차자 구결로 나뉘며, 차자 구결은 다시 음독(音讀) 구결과 석독(釋讀) 구결로 나뉜다.

ㄱ. 『훈민정음』

- (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
- (2)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흐씨} 故로 愚民이
- (3) 나랏 말쌔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슷디 아니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ㄴ. 『동몽선습』(1543)

- (1) 天地之間 萬物之中^匡 惟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羅
- (2)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五倫이 있기 때문이다.

ㄷ. 『구역인왕경』(12C)

- (1) 信行具足 復有五道一切衆生 復有他方不可量衆
- (2) 信行^ㄷ 具足^ㄷ 復^ㄷ 有^ㄷ 五道^ㄷ 一切 衆生^ㄷ 復^ㄷ 有^ㄷ 他方^ㄷ 不^ㄷ 可^ㄷ 量^ㄷ 衆^ㄷ
- (3) 信行^ㄷ 具足^ㄷ 復^ㄷ 五道^ㄷ 一切 衆生^ㄷ 有^ㄷ 復^ㄷ 他方^ㄷ 量^ㄷ 可^ㄷ 不^ㄷ 衆^ㄷ 有^ㄷ
- (4) 淸信行을 구족하셨으며, 또한 五道の 모든 중생이 있으며, 또한 他方の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으며

(ㄱ1)은 『훈민정음』(해례본)의 원문이고, (ㄱ2)와 (ㄱ3)은 언해본이다. 이때 (ㄱ2)와 같이 한문 원문에 한글로 된 구결자를 달면 한글 구결이 된다. (ㄴ1)과 같은 음독구결은 한문을 어순 그대로 읽되 읽기 쉽도록 구결 아래에 문법 요소만을 덧붙여 읽는 구결이다. 즉 (ㄷ)과 같은 석독구결은 한문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열하여 풀어 읽는 구결이다. 석독 구결은 음독 구결보다 우리말의 형태를 더 많이 보여 주고 있으며 실질 형태소 역시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는다. 예를 들어, 한문 원문 ‘人’에 구결자 ‘^ㄷ’를 써 ‘人^ㄷ’와 같이 쓴다면 이는 ‘人’을 ‘^ㄷ’으로 끝나는 우리말로 읽으라는 뜻이다. 즉 ‘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번역하여 읽는다.

(ㄷ1)은 한문 원문, (ㄷ2)는 구결 원문이며 (ㄷ3)은 구결이 지시하는 대로 재배열한 문장이다. 이때 석독구결은 어순을 재배열하여 읽는다는 점에서 음독구결과 다르다. 음독구결은 써져 있는 순서대로 “천지지만 만물지중에 유인이(天地之間 萬物之中^匡 惟人^伊)”와 같이 읽는다. 그러나 석독구결은 (ㄷ2)와 같은 구결 원문이 써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우선 위첨자가 있는 것부터 읽다가 역독점(‘^ㄷ’)이 보이면 거슬러 올라가 아래첨자가 있는 것을 읽는다.³⁴⁾ 예를 들면,

34) 위첨자는 실제 문헌에서는 한자 오른쪽에 쓰인 구결자이고, 아래첨자는 실제 문헌에서 한자 왼쪽에 쓰인 구결자이다. 과거에는 세로 쓰기를 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 있던 것이다.

구결문(약자): 復^フ 有^キ 五^イ道^ウ 一切衆生^ニ
현대국어 번역: 또한 있으며 오도의 일체중생이

위첨자부터 읽어 “또한 오도의 일체중생이”가 되고, ‘^ニ(이)’ 뒤에 역독점이 있으니 다시 뒤로 되돌아가 아까 읽지 않은 ‘있으며’를 읽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하면 위 구결문은 “또한 오도의 일체중생이 있으며”로 읽히게 된다. 이때, 구결자는 본래의 한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이두와 달리 한자의 획을 따거나 기존에 있던 한자를 간략화해서 쓰였다. 간략화한 것을 ‘약자’라고 부르고 원래 형태의 한자를 ‘본자’라고 부른다. 위의 구결 원문을 본자로 쓰면 다음과 같다.

구결문(본자): 復^{爲隱} 有^{此在弥} 五^叱道^叱 一切衆生^是

석독구결은 한문이 전래됐을 때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시대에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음독구결은 고려 말 중국(명)이 동아시아의 패권자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한문 구사력의 중요성이 커져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독구결은 13세기까지 쓰였고 음독구결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쓰였다. 음독구결은 아직까지도 쓰이는데 바로 논어 등의 한문 경전을 읽을 때다. “學而時習之 不亦悅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원문을 읽을 때 “學而時習之 面 不亦悅乎牙(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고 읽으면 음독구결이다. ‘面’과 ‘牙’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2.3.4 어휘 표기

고대국어 연구에서 다루는 어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보이는 고유명사 표기, 즉 고유어로 된 인명·지명·관직명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차자 표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료의 범위와 시대를 조금 더 넓게 설정하면, 중국에서 편찬된 『양서(梁書)』(7세기)와 일본에서 편찬된 『일본서기』(720)나 삼국의 목간 자료 등의 고대국어 자료와 전기 중세국어 자료인 『계림유사』(1103), 『향약구급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³⁵⁾ 여기서는 고유명사 표기만을 알아볼 것인데, 그 외의 자료는 2.6 단원에서 알아볼 것이다.

차자 표기를 통해 고대국어의 어형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여러 표기, 즉 이표기(異表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등에는 하나의 지명에 대해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훈차 표기와 소리를 빌려 표기한 음차 표기가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買忽一云水城

[매홀(買忽)은 수성(水城)이라고도 한다]

ㄴ. 松山縣, 本高句麗夫斯達縣

[송산현(松山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부사달현(夫斯達縣)이었는데]

ㄷ. 鵝洲縣, 本巨老縣

[아주현(鵝洲縣)은 본래 거로현(巨老縣)인데]

가령 (ㄱ)에서 보이듯 ‘水城’이라는 지명을 ‘買忽’이라고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지명을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표기했음을 뜻한다. ‘水城’은 한자의 의미를 빌린 훈차이고, ‘買忽’은 소리를 빌린 음차

35) 앞서 언급했듯 전기중세국어 자료는 교육의 이점을 위해 포함하는 것이다.

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당시 ‘물’을 뜻하던 어휘는 ‘買(매)’와 유사한 음가를, ‘성’을 뜻하던 어휘는 ‘忽(홀)’과 유사한 음가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훈차와 음차의 대응 관계는 고대국어 어휘의 의미와 음상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ㄴ)의 경우 ‘松(소나무)’에 대응하는 음차 ‘夫斯(부사)’, ‘山(산)’에 대응하는 ‘達(달)’을 통해 해당 어휘들의 옛 음가를 추론할 수 있으며, (ㄷ)에서는 ‘鵝(거위)’와 ‘巨老(거로)’ 사이의 대응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음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훈차 지명은 한화(漢化) 지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부르던 지명에 대해 이후 시간이 흐르며 한자의 의미를 적용해 새롭게 지은 명칭을 뜻한다. 이는 주로 통일신라 경덕왕대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 명칭에 대한 이표기는 지명뿐 아니라 인명과 관직명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ㄱ. 異斯夫【或云苔宗】

[이사부(異斯夫)【혹은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

ㄴ. 居柴夫【或云荒宗】

[거칠부(居柴夫)【혹은 황종(荒宗)이라 한다】]

ㄷ. 四曰波珍滄【或云海干, ...】

[4등은 파진찬(波珍滄)【혹은 해간(海干)이라 한다, ...】이다]

ㄹ. 一曰伊伐滄 ... 【或云角干, ... 或云舒發翰】

[1등은 이벌찬(伊伐滄)【혹은 각간(角干)이라 한다, ... 혹은 서발한(舒發翰)이라 한다】이다]

ㅁ. 酒多後云角干

[주다(酒多)는 후에 각간(角干)이라고 불렀다]

(ㄱ~ㄴ)은 인명, (ㄷ~ㅁ)은 관직명이다. 지명의 이표기와 마찬가지로 음차와 훈차를 비교하여 고대국어의 어휘를 추정할 수 있다. (ㄱ)에선 ‘異斯(이사)’와 ‘苔(이끼 태)’가, (ㄴ)에선 ‘居柴(거칠)’과 ‘荒(거칠 황)’이 대응하므로 ‘이끼’의 고대국어 어형은 ‘異斯’와 비슷했음을, ‘거칠-’의 어형은 ‘居柴’과 비슷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ㄷ)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波珍滄’과 ‘海干’이 대응하므로, ‘바다(海)’를 뜻하던 고대국어 어형이 ‘波珍’과 비슷한 소리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ㄹ)과 (ㅁ)은 무척 재미있는 예시이다. 동일한 관직명에 대한 이표기인데 (ㄹ)은 『삼국사기』 권38, (ㅁ)은 『삼국사기』 권1의 문장이다. ‘角干-舒發翰-酒多’의 대응이 보이는데 이때 ‘角’과 ‘酒’는 훈차, ‘舒發’은 음차이다. 角은 ‘뿔’, 酒는 ‘술’을 의미하는데 언뜻 보면 ‘뿔’과 ‘술’이 ‘舒發(서발)’과 음가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국어를 고려하면 명쾌해지는데, ‘뿔’과 ‘술’의 중세국어 어형이 각각 ‘썰’과 ‘수을’이기 때문이다. ‘썰’은 본래 ‘*스블’이던 단어가 어중 모음 탈락으로 이루어진 말이고, ‘수을’은 ‘*수블’에서 ‘빙’의 소리가 사라진 결과이므로 고대국어 시기에서는 角과 酒의 훈이 모두 ‘sVpV’³⁶⁾를 나타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고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선 중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위의 이표기는 동일 문헌의 기록인데 다른 문헌의 표기도 이표기로 볼 수 있다. 『일본서기』의 ‘助富利智干’도 ‘伊伐滄’의 이표기이다. 여러 이표기들을 통해 고대국어의 어형을 재구하는 것은 2.5 단원에서 배울 것이다.

36) V는 모종의 모음, C는 모종의 자음을 뜻한다. ‘k, n, t, l, m, p, s, c, h, z, W’는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ㅌ, ㅍ’이다. 이는 예일식 표기이며 격음은 평음 뒤에 h를 붙인다.

2.4 음운론

고대국어의 음운은 무척이나 이견이 많으며 정설로 인정될 만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대국어의 고유 문자를 갖추지 못한 채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고대국어의 음운을 추정하기 위해 한자의 음가를 재구해야 한다는 뜻인데 한자의 음가를 재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재구음이 고대국어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역시 고려해야 하기에 무척이나 복잡하다. 예컨대 ‘天’이 중고한어에서 특정한 음가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음가가 동일한 형태로 한반도에 수용되었는지, 혹은 고대국어에서 음운론적·음성적 변형을 거쳤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자는 본래 중국어의 체계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문자로, 한국어의 자음 및 모음 체계의 정밀한 표시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음차 표기의 존재만으로 고대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복원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한자는 표음성이 부족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존하는 고대국어 자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음운 현상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실증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대국어의 음운론 연구는 필연적으로 추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학자 간 견해 차도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비교적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견해들과 최근에 제시된 몇 가지 견해들을 중심으로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³⁷⁾

2.4.1 자음 체계

우선 중세국어의 음운 체계를 바탕으로 논지가 전개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평음과 비음은 대체로 고대국어에서도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은 고대국어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외의 여러 측면에서는 견해가 나뉜다.

2.4.1.2 경음의 여부

아주 다행히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좋은 부분이다. 고대국어 시기에는 경음이 발달하기 전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조선 한자음에는 경음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로 거론되었다. 현대국어에서 경음을 보이는 한자음 역시 모두 평음이었는데 가령 氏는 ‘씨’가 아니라 ‘시’였다. 중국어에는 유성장애음에 해당하는 전탁음이란 것이 있는데 만약 한국어 화자가 한자를 받아들였던 시기에 경음이 음운 체계에 있었다면 전탁음이 경음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탁음은 체계적으로 모두 평음에 대응한다. 물론 조선 한자음이 고대국어 시지기의 한자음과 동일한 체계를 가졌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한자음은 어느 정도 고정된 체계를 가졌으므로 중세국어 시기에 경음을 가지는 한국 한자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를 받아들였을 무렵 고대 한국어에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다른 근거로는 종성의 불파음화가 있다. 경음은 음운의 결합 내지는 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불파음 [k, t, p]와 그 다음 음절의 초성의 평음이 서로 만날 때 경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에서 고대국어는 그 기본적인 음절 구조가

37) 여러 학자들의 재구 체계는 신성철(2022)에 대부분 실려 있으니 이를 참고 바란다. 한자음은 굳이 상술하지 않겠다. 권인한 교수와 김무림 교수의 연구를 찾아보길 바란다. 위국봉(2014) 역시 참고된다. 전승한자음은 고대국어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서 다루긴 너무 복잡하다.

개음절 즉 모음으로 끝난다고 보거나, 또는 개음절이 아니라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이지만 많은 자음이 종성에서 불파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외파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본다. 즉 고대국어 시기에는 애초에 불파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경음 자체가 발달할 수 없었기에 음운 체계에 경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세국어 시기 경음으로 여겨지는 ㄱ계 합용병서의 경우도 고대국어 시기에는 ‘*sVCV’의 구조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중세국어의 ㄱ계 합용병서를 경음으로 해석하더라도 고대국어에서도 그 어휘가 경음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성에서의 불파음화는 파열음을 시작으로 마찰음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시작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겠으나 대체로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불파음화가 시작된다고 추정된다.

2.4.1.2 격음의 여부

경음과 달리 격음은 있었다는 의견과 없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두 주장 모두 원시 한국어 시기에는 격음이 없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전자는 적어도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격음이 발달되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고려 중후반에 형성되었다는 입장이다. 두 견해 모두 격음은 어중에서 생성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어두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격음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조선 한자음에도 격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격음을 나타내는 중고한어의 차청(次淸)음 성모와 한국한자음의 격음 초성 간의 대응 불규칙적인 것 하지만 경음과 달리 한자음에 격음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격음의 역사를 일찍 소급할 수 있다. 또, 고대국어 차자 표기 중, ‘厭(염)’에 대응하는 ‘異次(이차)’나 ‘伊處(이처)’는 중세국어의 ‘잇다’에 해당하며 ‘居柒’은 ‘거츨-(‘거칠-’의 옛말)’에 해당하는 표기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격음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조선 한자음에 격음이 나타나긴 하지만 차청(次淸)음과 조선 한자음의 격음 초성의 대응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음을 받아들일 당시 격음이 음운체계에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異次’나 ‘居柒’ 등의 표기에서 격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次’와 ‘柒’은 다른 차자 표기를 볼 때 격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과연 저 표기에서 격음을 나타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전기 중세국어 역시 근거로 제시하는데, 계림유사의 기록을 보면 후기 중세국어에서 격음 ㅈ, ㅋ, ㅌ, ㅍ을 가지던 어휘가 ㅎ을 가진 한자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이는 12세기 고려에서도 아직 격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 견해를 절충하기도 한다. 이 견해에서는 고대국어 시기에 격음이 있긴 했으나 ‘ㄷ, ㅌ, ㅍ, ㅈ’라는 모든 격음이 있던 것은 아니고 일부만 존재했다고 본다. 고대국어에는 ‘ㄷ’과 ‘ㅌ’만 있었고 전기 중세국어에 다른 격음(ㅋ과 ㅍ)이 형성되어 격음 체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ㅈ으로 시작하는 고유어도 많고 한자음도 많기 때문에 ㅈ은 그 존재를 비교적 일찍 소급할 수 있으나, ㅋ이나 ㅍ으로 시작하는 한자음은 거의 없고 그 차청음과의 대응이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이 둘은 고대국어에 있었다고 보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 ㅋ으로 시작하는 고유어는 극히 드물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여기서는 절충안을 따르도록 한다. 격음을 아예 부정하기에는 일부 인명 표기가 있고 그렇다고 격음을 아예 긍정하기에는 ㅋ은 너무나 그 존재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2.4.1.3 유성 마찰음의 여부

여기서 유성 마찰음이란 중세국어에 존재하던 반치음(ㄷ)과 순경음 비읍(빙)을 의미한다. 고대 국어에 이들 음운이 존재하였는가 역시 이견이 있으나, 유성마찰음 계열의 경우는 고대 국어에 존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ㄷ’은 중세국어 한자음의 초성으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그 역사를 일찍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빙’은 조선 한자음에 보이지 않으나, 이는 중국어 내적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차자 표기를 바탕으로 추정하는데 전기 중세국어 자료인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에서 유성 마찰음의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

『계림유사』

한문	고려어(중세국어 한자음)	중세국어	현대국어
四十	麻刃(마신)	마쑤	마흔
弟	ㄱ兒(아스)	아스	아우
酒	酥亨(소발) ³⁸⁾	수을	술
秤	雌亨(즈발)	저을	저울

『향약구급방』

한문	항명(남풍현 재구)	중세국어	현대국어
漆姑	漆矣於耳(웃이 어시)	웃이 어시	웃의 목심(木心)
蚯蚓	居叱兒乎(거슌휘)	것위	거위
麩	只火乙(기블)	기을	기울
馬蹄	態月背(곰돌비)	곰돌외	곰취

중세국어에서 ‘ㄷ’을 가지던 어휘는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에서 日母 즉 초성이 ‘ㄷ’인 한자로 표기되었다. ‘刃, 兒, 耳’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각각 ‘신, 스, 시’였다. 한자음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후기 중세국어의 한자음은 적어도 전기 중세국어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日母로 표기했다는 것은 ‘ㄷ’의 존재를 안정적으로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소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빙’은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로 순경음 계열이 아닌 파열음 계열의 한자로 쓰였고 중세국어 한자음에는 순경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암시되는 바가 있다. 일단 전기 중세국어 자료에서 /p/를 나타낸 한자는 중세국어 어형의 ‘ㄱ/ㄷ’ 계열 혹은 ‘-’ 모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ㅂ→빙→ㄱ/ㄷ(또는 ∅)’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문제는 과연 계림유사나 향약구급방에서 ‘빙’이었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빙이 하나의 음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빙’이 곧 비음운화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소의 생성과 소멸을 고려할 시 ‘빙’의 존재를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소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빙’이 전기 중세국어에 없었다면 ‘빙’은 고작 50여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존 기간이 짧은 음운은 너무 부자연스럽다.

38) 亨은 중세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발’로 옮김.

이처럼 고려 시대의 문헌은 ‘△’과 ‘뵙’의 존재를 어느 정도 확인하게 해 주나, 그 이전의 고대국어 자료에서는 이 둘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을 실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 ‘뵙’이 기원적인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만약 ‘△’과 ‘뵙’이 기원적인 것이라면, 고대국어 시기에는 ‘ㅅ, △, ㅂ, 뵙’이 모두 음소로 존재하였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ㅅ’과 ‘뵙’이 ‘△’과 ‘뵙’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형태소 내부에서는 애초부터 ‘△’과 ‘뵙’이었다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기원적 ‘△’과 ‘뵙’이 방언에 따라 ‘ㅅ’과 ‘뵙’으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달리 기원적 ‘△’과 ‘뵙’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과 ‘뵙’이 본래 ‘ㅅ’과 ‘뵙’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어째서 모음 사이의 ‘ㅅ’과 ‘뵙’이 모두 약화되지 않고 일부만 ‘△’과 ‘뵙’으로 약화되었는가는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만 공명음 사이의 ‘뵙[b]³⁹>뵙[β]’ 그리고 ‘ㅅ[s]>△[z]’은 언어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와 반대되는 변화 즉 ‘뵙[β]>뵙[b]’과 ‘△[z]>ㅅ[s]’는 언어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유명사 표기와 향가에서 △[z]와 대응시킬 만한 표기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표기의 조잡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ㅅ’이나 ‘ㅈ’을 지닌 한자로 표기되었고 이처럼 유성음이 실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성 마찰음을 고대국어까지 소급하기 어려운 점이 된다.⁴⁰⁾

중세국어의 유성 마찰음으로 ‘ㅇ[h]’도 있으나 학계에서 고대국어 시기 ㅇ[h]의 존재는 관심을 덜 받았고, 또 일반적으로 형태소 내부든 경계이든 ‘ㄱ’에서 온 것으로 보기에 대체로 고대국어까지 그 존재를 소급하지 않는다.

결국 고대국어에 유성 마찰음이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 없이 소급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실증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국립국어원(1998)에 실린 김무림(1998)과 같이 유성 마찰음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 정확히는 고려 시대 전후에 음소로서 성립되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2.4.1.5 ㅈ의 여부

秀宗或云秀升 [수종(秀宗)은 어떤 책에서는 수승(秀升)이라고도 하였다.]

未鄒尼叱今 一作未炤 又未祖 又未召

[미추(未鄒)이사금 미소(味炤)·미조(未祖)·미소(未召)라고도 한다.]

‘ㅈ’계 초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ㅅ’계 초성의 한자와 호응된다는 사실에서 ‘ㅈ (/ts/)’를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조선 한자음에 ‘ㅈ’을 초성으로 가지는 단어가 많다는 것, 계림유사에 /ㅈ/의 음가를 가지는 표기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즉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 없이 ‘ㅈ’의 존재를 소급할 수 있다. 특히 중고한어에

39) 음성적으로 ㅂ은 어두에서 [p], 어중에서는 [b]이다. [p]는 표이 아니고 [pʰ]가 표이다. 여기서 유성파열음을 음소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견해가 또 나뉘기도 하나, 유성 파열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체계상 더 적절해 보인다. 유성파열음 긍정론은 Ramsey(1991)와 박창원(1985)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Vovin(2003)과 김무림(2009), 위국봉(2014) 등이 참고된다.

40) 관련해서 소신애(2012)가 참고된다. 또한, 이는 향가 재구에서 ‘△’를 쓸 것인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향가 재구는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하나 일부 어휘는 고대국어 어형을 재구하여 쓰기 때문이다.

서 파찰음인 한자는 절대 다수가 ‘ㅈ’으로, 마찰음인 한자는 절대 다수가 ‘ㅅ’으로 조선 한자음에 반영되었다.

또 ‘次’라는 한자가 고대국어 시기 차자 표기에 말음의 ‘ㅈ’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따라서 통일 신라 전후에서도 ‘ㅈ’이 음소로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국어의 ‘이차돈’이나 ‘거칠부’와 같은 표기에서 ‘次’이라는 격음을 상정한다면 ‘次’은 기원적으로 ‘ㅈ’에서 온 것이므로 당연히 ‘ㅈ’ 역시 고대국어 시기에 존재하였을 것이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격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중세 때 ‘次’이었던 것은 고대에선 ‘ㅈ’이었을 것이라고 재구하기에 ‘ㅈ’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한자가 호용되었다고 하여서 그 음가가 음소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특히 이러한 논리를 확대시키면 치음과 설음의 혼용도 보이기에 결국 이들의 음도 구별이 없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호용은 다수의 예가 아니며 대부분 파찰음은 파찰음끼리, 마찰음은 마찰음끼리 대응한다. ‘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ㅈ’이 없었다면 ‘ㅈ’이 어떻게 후세에 음소로 확립되었는지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2.4.1.6 ㅎ의 여부

父骨正 一作忽爭[아버지는 골정(骨正)어떤 글에서는 흘쟁(忽爭)이라 하였다]
諱理洪 一作恭[이름은 이홍(理洪) 또는 [홍(洪)을] 공(恭)이라고도 적는다.]

‘ㅎ(/h/)’ 역시 한자의 호용으로 인해 고대국어에 존재하지 않았고 후세에 ‘ㄱ(/k/)’에서 분화된 음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骨’과 ‘忽’처럼 ‘ㄱ’과 ‘ㅎ’이 대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어두에서 ‘ㅎ’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의 ㅈ과 마찬가지로 조선 한자음에 ‘ㅎ’을 초성으로 가지는 한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계림유사에 ‘ㅎ’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다는 점은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ㅎ’을 상정하는 근거가 된다. 한어에서 후음성모인 曉母(h)와 匣母(h)가 조선 한자음에서 ‘ㅎ[h]’ 초성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ㅎ’이 늦게 발달한 음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격음은 기원적으로 ‘ㅎ’과 평음의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음소이기에 ‘ㅎ’을 보다 일찍 소급시켜야 한다.

물론 중세국어의 모든 ‘ㅎ’이 고대국어에서도 ‘ㅎ’이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ㄱ’에서 나중에 ‘ㅎ’이 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ㅎ’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ㅎ’도 일단 고대 국어에는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4.1.6 두 가지 ㄹ의 여부

현대국어에서 ‘ㄹ’은 기본적으로 설측음 [l]로 발음되나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 [r]로 발음된다. 현대국어에서 [l]과 [r]은 별개의 음소가 아니고 변이음이라 음성적 차원에서 다뤄진다. 그러

41) 이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복잡하다. 그 중간적인 소리 [x]나 [ɣ] 등을 재구하기도 하며 이견이 많다.

나, 고대국어 시기에 ‘乙’과 ‘尸’가 구별되어 쓰였다는 점에서 [l]과 [r]이 변이음이 아니라 별개의 음소 /l/과 /r/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향찰 표기에서의 용법 차이 그리고 알타이어족과의 관련성이 주로 언급된다. 다만 이러한 의견을 부정하고 형태론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국어사에서 시간이 흐르며 종성이 불파음화되었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l]은 [r]이 불파음화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가지 r에 대해 별개의 음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국어의 자음 체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무조건 맞는 정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구 체계라 볼 수는 있을 것이다.⁴²⁾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ㄱ	ㄷ	ㅂ
		격음		ㅌ	
	파찰음	평음		ㅈ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격음			ㅎ
공명음	비음		ㄴ	ㅁ	ㅇ ⁴³⁾
	유음		ㄹ		

2.4.2 모음 체계

후기 중세국어에는 단모음이 /i, ɨ, ɛ, ʌ, ɔ, ʊ, ʌ/의 총 7개가 있었다. 이러한 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고대 국어의 모음 체계를 재구하지만 그것이 실증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단모음의 개수를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7모음 체계로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적은 6모음 또는 5모음 체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음의 음가가 과연 중세국어와 동일했는가 역시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단 통설은 7모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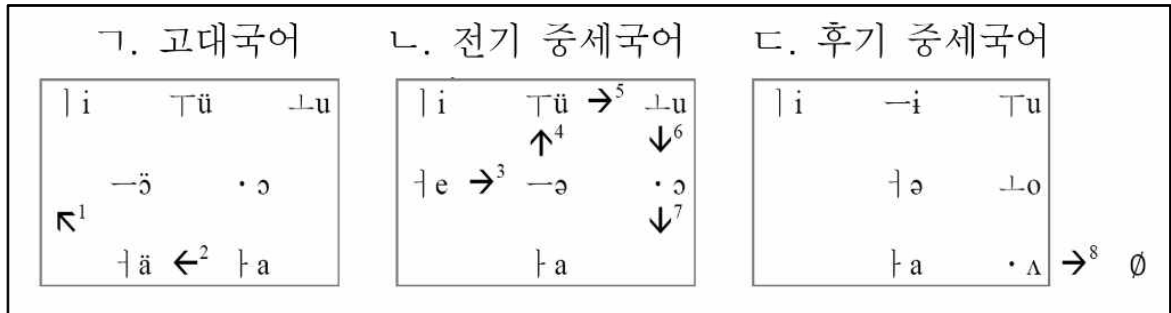
(1)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ㅣ [i]	ㅡ [ɨ]	ㅜ [u]
	ㅓ [ɛ]	ㅗ [o]
	ㅑ [a]	ㅓ [ʌ]

42) 현행 및 차기 교과서에서는 고대국어에는 ‘에사소리-거센소리’의 대립만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서술을 신고 있다. 그 격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교과서의 통설은 알기 어렵지만, 아마 이기문(1998)과 같이 모든 격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도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 격음만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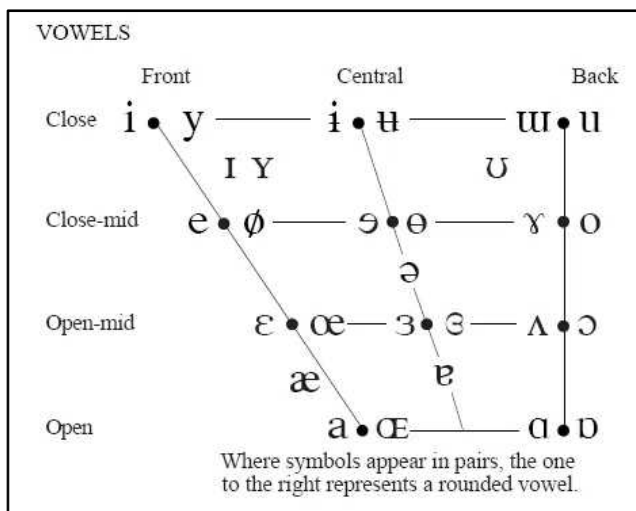
43) 종성의 ‘ㅇ[n]’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단 여기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도록 한다.

2.4.1.1 모음추이의 여부

7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가 그나마 널리 퍼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7모음 설에서는 이기문 교수가 제시한 모음추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음추이란 모음 체계 내의 모음의 연쇄적인 변화로 체계 전체가 다른 구조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⁴⁴⁾ 학교문법에선 이 설을 채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음추이의 첫째 단계는 고대국어에서 전기 중세국어 사이에 ‘ㅍ’가 전설 중모음 영역으로 이동하고 이어 ‘ㅍ’가 중설화하는 당기는 연쇄(drag chain)에 의한 추이이다. 둘째 단계는 전기 중세국어로부터 후기 중세국어에 이르는 동안 ‘ㅍ’의 중설화([e]>[ə])를 필두로, ‘ㅡ’의 상승, ‘ㅍ’의 후설화, ‘ㅍ’의 하강, ‘·’의 하강으로 이어지는 미는 연쇄(push chain)에 의한 추이이다. 이후 ‘·’는 대체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ㅡ’, 어두 음절에서는 ‘ㅍ’와 합류하여 근대국어 시기에 소실되고 만다. 아래의 일반적인 모음사각도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⁴⁵⁾



44) 이기문 교수의 [ä]와 [ö]는 [e]와 [ə]와 비슷할 것이고, [ü]는 [ɨ]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ü]는 [y]를 나타내나 이기문 교수는 [ɨ]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다.

45) 위의 표에서 보이듯 당기는 연쇄는 어떤 음이 먼저 움직여서 빈자리를 만들고, 다른 모음들이 그 빈자리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미는 연쇄는 어떤 모음이 이미 존재하는 모음의 위치로 가 그 모음을 압박하고 압박의 결과로 밀려가는 것을 말한다. 아래 모음사각도의 영어 용어를 번역하면 ‘Front=전설모음, Central=중설모음, Back=후설모음, Close=고모음, Close-mid=중고모음, Open-mid=중저모음, Open=저모음’이다.

그러나 이기문 교수의 모음추이설은 최근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에⁴⁶⁾ 모음추이를 긍정하기는 어렵다. ‘ㄱ’의 중설화로 인해 다른 모음들의 연쇄적 추이를 이끄는 그 동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몽골어 재구를 모음추이의 근거로 쓰는 것도 문제이다. 이기문 교수는 모음추이설을 중세 몽골어와 비교하면서 제시하였는데 그 당시의 몽골어 재구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기문 교수가 제시한 몽골어-한국어 대응 예시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몽골어 차용어에 보이는 /e/와의 대응, 東音 자료에 보이는 한어의 /ɛ/와의 대응, 『계림유사』에 보이는 /ɛ/와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ㄱ’이 전기 중세국어에서 전설모음이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ㄱ’이 전기 중세국어에서 후기 중세국어로 넘어갈 때 중설모음으로 혀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다른 모음까지 연쇄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ㄱ’만 그 음가가 달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또, ‘ㆍ’와 ‘ㅡ’의 존재도 논란이 있다. 몇몇 학자는 ‘ㆍ’와 ‘ㅡ’가 고대 국어에 없었으나 중세국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 한자음이나 전기 중세국어 자료를 고려하면 ‘ㆍ’와 ‘ㅡ’는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무리없이 소급해야 할 것이다. 고대 국어에 과연 이들이 있었을지는 확실히 실증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없다고 보기보다는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고대국어 시기의 정확한 모음 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한자음의 재구와 그 층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 자음체계표와 달리 모음체계표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2.4.1.2 중모음의 여부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고대국어의 이중모음은 후기 중세국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즉 반모음 ‘j’나 ‘w’를 앞세우는 상향 이중모음이나 ‘j’를 뒤로 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중세국어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 한자음의 음절 유형에 이러한 이중모음이 잘 보일 뿐더러 고유어에서도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이중모음은 그 존재를 일찍 소급할 수 있다.

또한 후기 중세국어에 보이지 않는, 즉 고유어 또는 조선 한자음에 보이지 않는 이중모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반모음 ‘j’와 ‘ㆍ’로 이루어진 ‘!’⁴⁷⁾와 반모음 ‘j’와 ‘ㅡ’로 이루어진 ‘!’와 같은 이중모음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 [jɨ]’는 ‘으답(여덥)’과 같이 제주 방언에 남아 있으며 현대 방언에 ‘ㅜ~ㅝ’의 대응이 보이는 것은 ‘! [jɨ]’를 재구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덥-야덥’은 기원적으로 ‘*으덥~여덥’이었는데, 후기 중세국어로 넘어갈 때 중앙어에선 ‘!’가 ‘ㅝ’로 합류하였기에 15세기 문헌에서는 ‘여덥~여덥’만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 방언에서 ‘야덥’과 같이 ‘ㅜ’형이 보이는 것은 일부 방언에는 ‘!’가 남아 있었고, 그러다 아래아의 음가가 ‘ㅜ’로 바뀌는 시기에 ‘!’가 ‘ㅝ’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⁸⁾ 물론 이러한 이중모음이 고대 국어에도 존재하였는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46) 김주원(1992), Vovin(2000), 고성연(2014/2020), 고경재(2017/2022) 등이 참고된다.

47) 이를 표기할 때는 주로 쌍아래아를 이용해 ‘으’로 쓴다.

48) 관련하여 백두현(1994)과 김현(2015)이 참고된다.

또한, 모든 후기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 그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중모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j'계 하향 이중모음은 'CVli(X리)'에서 'ㄹ(l)'의 약화로 인하여 'ㄹ'이 탈락하고 'l'이 'j'로 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예시가 많다. 'ㄹ'은 그 빈도가 다른 이중모음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그 기원이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모음이다. 후기 중세국어의 'ㄹ'을 'l'에서 온 경우(소위 i-breaking 현상), 'ㄹ'에서 온 경우, 그리고 'l'에서 온 경우로 나뉘어서 고대 국어 시기에는 'ㄹ'이 없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ㄹ'은 고대 국어에도 있었지만 그 수가 적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대국어에서는 중모음 체계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전기 중세국어에 중모음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논의를 따라 고대국어의 중모음은 대체로 중세국어의 그것과 유사했을 것이고 'l'와 같은 일부 중세국어에는 없던 중모음이 있었다고 보겠다.

2.4.3 운소 체계

후기 중세국어는 운소, 즉 초분절음운으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국어의 자료에서 중세국어 성조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성조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하면 성조의 언어적 기능이 더 뚜렷했을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한자음의 성조를 중고음의 성조와 비교하였을 때 그 대응이 비교적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고대국어까지 성조를 소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자음이 고정될 시기에 성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대응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고대국어의 성조 체계가 중세국어보다 더 뚜렷했을 것이라는 견해와 중세국어의 그것보다 더 간단했을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비록 고대국어의 성조가 정확히 어땠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고대국어는 운소 체계로서 고저의 요소를 기본으로 한 성조 언어였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했기에 확실치 않을 수 있다.

49) 성조를 통한 재구와 관련해서 Ramsey(1986/1991/1993), Ito(2013) 등이 참고된다. 물론 이는 가설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렇다 할 정설은 아직 없다.

2.5 어휘의 재구와 음운의 변화

참고문헌

- 고경재 (2017), 「국어 모음추이의 시기와 원인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 고경재 (2022), 「12~15세기 국어 모음체계 연구-모음추이 이론의 재확립」,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성연 (2014), 「The End of the Korean Vowel Shift Controversy」, 『Korean Linguistics』 1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고성연 (2020), 「한국어 모음추이설에 대한 비판적·종합적 고찰」, 『한글』 81, 한글학회.
- 국립국어원 (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원.
- 김무림 (2009), 「古代國語 音韻論」,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주원 (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국어학회.
- 김현 (2015), 「中世 國語 ‘ㄱ’의 音韻論」, 『어문연구회』 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재민 (2018) 「향가 해독 100년의 연구사 및 전망 -향찰 체계의 인식과 古語의 발굴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45, 한국시가학회.
- 박지용 외 (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창원 (1985), 「국어 유성 장애음의 재구와 그 변화」,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 박창원 (1997), 「향찰과 향가」, 『새국어생활』 7, 국립국어원.
- 백두현 (1994), 「이중모음 ' .. ' 의 통시적 변화와 한국어의 방언 분화」, 『어문론총』 28, 한국문학언어학회.
- 백두현 (2005),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 신성철 (2022), 「고대 국어 음운 체계의 연구 성과와 전망」,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 위국봉 (2014),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 (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동석 (2000), 「향가의 첨기 현상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 이상혁 (2015), 「폴리바노프(Polivanov)의 언어관에 대하여 - 구소련 언어관과의 대조 및 그의 알타이 계통론을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임지룡 외 (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황선엽 (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 L. Campbell and W. J. Poser (2008), 『Language Classification: History and Meth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Ki Moon and S. R. Ramsey (2011),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to, Chiyuki (2014), 「Korean accent-Internal reconstruc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Korean Linguistics』 1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amsey (1986), 「The Inflecting Stems of Proto-Korean」, 『어학연구』 2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Ramsey (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In W. Boltz & M. Shapiro (Ed.),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amsey (1993), 「Some Remarks on Reconstructing Earlier Korean」, 『어학연구』 2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Vovin (2000), 「On the Great Vowel Shift in Middle Korean and position of stress in Proto-Korean」, 『Korean Linguistics』 10

Vovin (2003), 'Once Again on Lenition in Middle Korean', 『Korean Studies』 27,

Vovin (2020), 'Old Korean and Proto-Korean *r and *l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Eurasian Linguistics』